

역학 I /영양			번호: I - I - 3							
제 목	국문	폐경전,후 성인여성의 골밀도와 식품섭취와의 관련성								
	영문	Association of Bone Mineral Density and Frequency of Food Consumption among Pre- and Post-menopausal Women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진희 <sup>1)</sup> , 맹광호 <sup>2)</sup> , 이순영 <sup>1)</sup> , 김영옥 <sup>3)</sup>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동덕여자대학교 자연과대학 식품영양학 전공								
	영문	Jin Hee Kim <sup>1)</sup> , Kwang Ho Meng <sup>2)</sup> , Soon Young Lee <sup>1)</sup> , Young Ok Kim <sup>3)</sup>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and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3)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김진희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 목적</p> <p>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골밀도는 중요하며 성인의 최대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성, 인종, 신체크기, 고령, 폐경, 호르몬, 칼슘 섭취 등이 밝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밀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식품섭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폐경 전,후 성인여성의 골밀도와 식품섭취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1997년 8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시행한 건강, 영양 진단조사에서 선정하였다. 골밀도 측정,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팔둘레, 삼두근피지두께, 체지방), 산부인과력(폐경여부, 폐경연령, 폐경기간, 초경연령, 총임신횟수) 및 식품섭취빈도조사가 이루어진 30-69세 여성주민 32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대상자를 폐경전,후의 두 군으로 분류한 결과 폐경전은 237명(72.3%), 폐경후는 91명(27.7%)이었으며, 폐경전 여성의 평균 골밀도는 0.52 g/cm<sup>2</sup>, 폐경후 여성은 0.42 g/cm<sup>2</sup> 이었다. 단변량 분석결과 폐경전 여성에서는 연령, 체중, 엉덩이둘레와 국수, 쇠고기, 육류 섭취빈도가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였고, 폐경후 여성에서는 연령, 신장, 폐경기간 및 무김치, 돼지고기, 새우, 육류 섭취빈도가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폐경전 여성에서는 쇠고기 섭취빈도가 골밀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math>b=0.002097</math>, <math>p&lt;0.01</math>), 연령 및 국</p>										

수 섭취빈도는 골밀도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b=-0.0027$ ,  $p<0.01$ ,  $b=-0.0018$ ,  $p<0.01$ ). 폐경후 여성에서는 신장과 새우 섭취빈도가 골밀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b=0.004025$ ,  $p<0.05$ ,  $b=0.004319$ ,  $p<0.05$ ), 폐경기간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b=-0.0063$ ,  $p<0.001$ ).

#### 4. 고찰

폐경전 여성에서는 연령 뿐만 아니라 식품섭취빈도도 골밀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고, 칼슘급원 식품의 종류에 따라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폐경후 여성에서는 신장과 폐경기간이 골밀도와 주로 관련이 있고, 새우 섭취빈도도 골밀도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충분한 칼슘 섭취가 이루어져야 하고 칼슘 섭취를 권장할 때 식품의 칼슘 함량 뿐 아니라 나트륨 등과 같은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여 칼슘 섭취 권장 식품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대도시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섭취빈도와 식품섭취량을 함께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